

제56호·2018년 3월 7일

항만·물류연구본부 | 국제물류연구실  
총괄·감수 | 이 성 우 본부장

# KMI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동향

## 일-러 정부, 제2회 작업부회 개최...8대 경제협력 중점 논의

- 지난 2월 22일 일-러 정부는 일본 도쿄에서 극동개발을 비롯한 8대 경제협력계획을 협의하는 제2회 작업부회(作業部會)를 개최함
- 러시아 측에서는 8대 경제협력 중 특히 IT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디지털 활용 기술 등에 대해 일본의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취지를 밝힘
- 8대 경제협력은 2016년 5월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된 일-러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에서 제안했으며 구체화를 위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음
- 올해 5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 예정인 일-러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개별 안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할 예정임

### <일본-러시아 8대 경제협력 개요>

분야	대책 예
① 의료	일본식 건강진단 도입
② 도시 조성	정체 완화, 하수도 보강
③ 중소기업 교류	투자 세미나 개최
④ 에너지 개발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
⑤ 산업 생산성 향상	일본의 공장시찰 연수
⑥ 극동개발 진흥	항만, 공항 정비, 목조 주택 공급
⑦ 선도 기술	원자력, IT
⑧ 인적교류	스포츠, 문화교류

- 지난 2월 21일 러시아 방문단은 아이치현(愛知県)을 방문해 도요타 자동차 및 미쯔비시 전기 공장 등을 시찰함
- 러시아의 경제개발장관인 Oreshkin씨는 향후 일본기업의 러시아 진출에 있어 자동차 및 전기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함

자료: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27256910S8A220C1PP8000/> (검색일: 2018년 3월 3일)

최나영환 전문연구원  
051-797-4677, chnayoung@kmi.re.kr



## 러 정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범위 확대 위한 법안 승인

- 러시아 정부는 하바롭스크 주 소벡스코-가반스키 지역까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승인했음
  - 소벡스코-가반은 하바롭스크 지방 소벡스코가반스키 군에 속한 도시로, 인구는 2만 4,671명이며(2017년 기준) 면적은 69km<sup>2</sup>임
  - 2017년 기준 약 56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한 소벡스카야 가반항이 소재하고 있음
- 파벨 볼코프 러 극동개발부 차관은 이러한 법안은 투자자들의 요청에 의해 발의된 것이며, 소벡스카야 가반항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총 15개라고 밝힘
  - 투자희망기업들은 수송단지 건설, 화물처리터미널, 접안시설, 목재가공생산시설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임
  - 총 민간투자금액은 540억 루블 이상으로 추산됨

소벡스카야 가반항 위치



자료: 구글지도를 바탕으로 필자 재구성.

자료: <https://ria.ru/economy/20180302/1515587108.html>(검색일: 2018년2월 19일)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 일본 기업 안마 대표단, 극동 연해주 투자환경 시찰... 현지 생산법인 고려

- 소형굴삭기 제조부문을 선도하는 글로벌기업인 일본기업 안마의 대표단이 연해주를 방문해 향후 극동에서의 생산법인 설립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연해주정부가 밝힘
- 기업 대표단 일행은 알렉산드르 코스첸코 연해주 제 1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연해주에서의 생산법인 설립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짐
- 기업인을 접견한 알렉산드로 코스첸코 연해주 제1부지사는 오늘날 러시아 정부는 극동발전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기업들과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협력 중이고 매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도 유수의 일본 대기업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고 밝힘
- 연해주정부측은 현지 생산공장 건설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는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들이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 선도개발구역 입주 기업에게는 세제 및 관세혜택이 부여되는데 앞으로 안마그룹이 연해주에서 사업을 펼치면 적극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높은 관심을 표명함
- 일본 측 타케시 미주하라 안마 대표는 이번 연해주 방문은 러시아 극동시장을 둘러보는 성격이라며 연해주의 향후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함
- 한편 코스첸코 제1부지사는 이날 면담석상에서 안마그룹이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줄 것을 공식 제안하기도 함

자료: <http://primamedia.ru/news/662157> (검색일: 2018년 2월 6일)

전명수 현지리포터(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 연해주정부, 인적쇄신 가속화... 두 명의 부지사 해임

- 안드레이 타라센코 대행 체제에서 연해주 정부의 인적쇄신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최근 2명의 연해주 부지사가 동시에 면직되며 그 배경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연해주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타라센코 주지사 대행은 겐나지 시롬야트노프 (Gennady Syromyatnov), 알렉세이 수흐노프(Alexei Sukhov)부지사 해임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면서 새로운 직무체제 개편에 따른 조치라는 짙막한 논평으로 최대한 말을 자제하는 분위기임
  - 이번에 면직된 시롬야트노프는 2016년 12월 부지사로 임명돼 법률지원, 호적, 공공보안 및 법 집행조정, 행정시행, 국가 기밀보호, 동원훈련 등의 업무를 관장했음
  - 2012년 9월 부지사직에 임명돼 최근까지 부주지사직을 수행한 수호노프는 극동지역 행정청장을 겸직하며 공무원인사, 예산회계, 기록보관소 등의 업무를 담당했음

자료: <http://vestiprim.ru/news/ptrnews/59343-dva-vice-gubernatora-pokinut-administraciyu-primorya.html>  
(검색일: 2018년 2월 8일)

전명수 현지리포트(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 러 하바롭스크시, 중국 헤이룽장성 허간시와 '16개 분야' 협약서 체결

- 최근 러시아 하바롭스크시는 중국 헤이룽장성 허간대표단과 양 도시 기업들 간 경제 통상 협력을 비롯한 물류, 관광, 학술, 문화 등 대대적인 협력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힘
- 허간 대표단이 직접 하바롭스크를 방문해 체결된 이번 협약서에는 △양 도시 정부 공무원 대표단의 교환연수 프로그램, △최신 정보교환을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상호 교차 관광 프로그램 개발, △기업들의 경제통상 협력 지원 구축, △교육문화 등 16가지에 달하는 협력 사업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하바롭스크시는 앞으로 수년간 함께 추진할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면서 미래에 양 도시의 기업들 간 경제통상 등의 협력 확대로 이어져 지금보다 한층 우의가 더욱 다져지길 바란다고 협약서에 서명한 세르게이 크랍축 하바롭스크시장 권한대행이 밝힘
- 협약식에서는 특히 최근 허간에 개설된 면세점 및 문화교육센터가 비중있게 논의됐다 는 후문임
- 이와 관련해 허간 측의 베이 우츠초이 부시장은 이미 많은 러시아 사업가들이 허간에서 국제무역 기반의 비즈니스 개발을 위해 활약 중이라고 있다고 화답함
- 또한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제품에 대한 중국 수요는 당연한 것이라며 보드카, 밀가루, 콩 등 러시아 우수제품을 기반으로 한 두 나라 간 국경무역에서 높은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임

자료: [https://khabarovskadm.ru/news/index.php?ELEMENT\\_ID=757378](https://khabarovskadm.ru/news/index.php?ELEMENT_ID=757378) (검색일: 2018년 2월 5일)

전명수 현지리포터(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 제2회 한국 투자자의 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

### 제2회 한국 투자자의 날 회의장 모습



자료: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7191>

등 국내 22개의 기업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한·러 양측 80여명<sup>1)</sup>이 본 행사에 참가함

- 본 회의에서는 '나인 브릿지' 실현과 한·러 수산업 협력 등 양자 간 경제 협력 현황을 논의함
- 지난 1월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과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화상회의를 통해 이번 만남에 대해 논의했고 러시아 대표단이 사전 한국을 방문해 '나인 브릿지' 실현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함

자료: <https://minvr.ru/press-center/news/13229/>(검색일: 2018년 3월 5일)

김은미 리포터

051-797-4776, usea1004@gmail.com

1) Newsis, '한·러, '9-브릿지' 협의 채널 가동..극동 사업 본격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05\\_0000242987&cID=10301&pID=103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05_0000242987&cID=10301&pID=10300)